



광주 대표 스포츠 잇갈린 행보



KIA, 뒷심 부족에 전략 부재 '지키지 못한 야구' 1위서 5위 추락 광주FC, 여범규 감독 '믿음의 축구' 무패행진 속 8위서 3위 점프

광주 스포츠를 대표하는 KIA 타이거즈와 광주 FC의 잇갈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시즌 전 두 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은 같았다. '우승후보'. 지난 가을 무서운 저력을 보여줬던 선발전과 FA 대이 김주찬의 영입은 KIA를 우승후보로 만들었다. 시범경기에서는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의 위력까지 더해지면서 이견 없는 우승후보였다.

광주에게도 '우승후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다. K리그 첫 강등팀이라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1부리그에서의 경험이 광주의 2013시즌에 후한 점수를 줬다.

◇지키지 못한 야구, 1위에서 5위로
시범경기를 휩쓴 KIA는 불붙은 방망이를 앞세워 1위 질주에 나섰다. 신명 난 야구에 계속된 꽃샘 추위에도 팬들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찾았다. 하지만 타격 상승세가 주춤하자 볼넷의 약점이 극명하게 노출됐다.

한기주의 부상에서 시작된 KIA의 고질적인 마무리 문제는 올 시즌에도 풀지 못한 숙제가 됐다. 스프링 캠프에서 마무리로 급히 변신을 한 앤서니의 불안한 9회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송은범의 난타까지 더해지면서 순위도 내려앉았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벤치의 대처도 아쉬웠다. 초보 마무리 앤서니, 준비 부족의 송은범의 실험적인 기용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서 9월 4·5점의 리드도 지키지 못했다. 선수 타탕 하기에 벤치의 실수가 잦았다.
선동열 감독은 "방망이는 믿을 게 못 된

다"며 타선에 대한 부분은 코칭스태프에 일임하고 마운드 중심의 운영을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력했던 지키는 야구가 승리를 지키지는 못했다.

선수들의 뒷심 부족과 전략 부족도 순위 싸움에 발목을 잡았다. 기회마다 헛도는 방망이와 위기에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답답한 플레이는 비슷한 실패로 이어졌다.

◇믿음의 축구, 8위에서 3위로
광주의 4월은 잔인했다. 김동섭·이승기·박기동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강등과 함께 정든 팀을 떠나야 했다. 새로 꾸려진 선수단은 경험부족과 신입 여범규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승후보라는 이

름이 무색한 플레이를 했다. 최하위까지 내려앉으며 광주가 흔들렸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상무에 0-3 대패를 당한 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략 싸움에서도 졌다"고 고개를 숙였던 여 감독의 축구가 익어가면서 광주의 반격이 시작됐다.

벤치를 지키던 선수들이 새로운 기회 앞에서 경쟁을 펼치며 선수단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주장 박병주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두 경기 출전에 그친 용병 카시오의 부진에도 '믿음과 경쟁'이 화두가 되면서 자연히 전력이 상승했다. 전 소속팀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루시오도 순한 양이 돼 광주의 축구에 힘을 불어넣었다.

스스로 없는 소통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준 여 감독은 경기 중에는 특별한 주문 없이 '마음껏 뛰어놀라'며 선수들에게 역할을 맡겼다. 믿음의 축구는 광주의 지략이 돼 뜨거운 여름을 이끌고 있다.

FC서울과의 FA컵 16강전은 감동의 드라마였다. 다투고 골리앗의 싸움에서 선수들은 주눅들지 않은 플레이로 서울의 등골을 서늘케 했다. 120분간의 연장전, 심판의 잇단 오심에 울었지만 포기 하지 않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팬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가을 잔치리는 공통된 목표를 세워라
구단 안팎의 분위기도 달랐다. 계약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단의 시각차는 불가피하지만 올 시즌에도 KIA의 감정싸움 양상은

비슷했다. '막말'이 오가며 각을 세우기도 했고, 내부의 알력싸움 속에 시즌 도중 프런트가 사표를 던지기도 하는 등 어수선했다.

성적하락과 함께 구단과 선수단 분위기도 경직됐다. '가을잔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한 인식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KIA는 LG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졸전을 펼치며 자존심을 구겼다. 전반기에 보여줬던 실력을 그대로 답습하며 팬들의 자존심도 구겨졌다. 가을잔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기는 야구다.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 선수들은 24일 오전 훈련이 끝난 뒤 물놀이를 갔다. 여 감독은 물론 코칭스태프와 프런트가 한데 어울려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워크숍을 통해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도 다졌다. 최근 부임한 정원주 대표이사도 선수들 사기 진작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오늘의 평온함을 위한 아픔의 시간도 있었다. 지난해 단장과 감독의 불화 속에 강등의 운명에 처하며 광주에 큰 시련이 있었다. 내외적으로 문제가 됐던 두 명의 팀장이 웃을 벗기도 했다. 갈등과 위기를 넘기고 '1부 진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세우면서 광주의 질주에도 속도가 붙었다.

잇갈린 행보의 두 팀이 가을 잔치에서는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굿바이 앤서니’
KIA 타이거즈가 24일 외국인 투수 앤서니의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식 마감일에 결별이 최종 결정되면서 앤서니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KIA 유니폼을 벗게 됐다. 지난 시즌 선발로 나서 3.83의 평균자책점으로 11승13패1세이브를 올렸던 앤서니는 올 시즌 마무리로 보직이 변경됐다. 20개의 세이브로 1위 자리에 오르기로 했지만 불안한 피칭이 계속되면서 4.50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4차례 볼넷을 내주며 시즌을 마감했다. 앤서니는 잇단 마무리 실패로 지난 5일

굿바이 앤서니

KIA 결별... 새 용병 물색

2군으로 내려가 보직 재전환을 위한 준비를 했지만 팀 재합류에 실패했다. 선동열 감독이 직접 지켜봤던 24일 넥센과의 퓨처스리그에서도 50닝 7피안타(1홈런) 1사구 2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스카우트를 현지로 내보낸 KIA는 조만간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못 넘은 만리장성



한국여자축구, 동아시아컵 중국에 1대 2패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13 동아시아컵 축구대회에서 중국에 져 2연패를 당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4일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풀리그 2차전에서 중국에 1-2로 패배했다.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내준 뒤 김나래(수원FMC)가 동점골을 터뜨렸으나 후반에 다시 한 골을 내주고 말았다. 한국은 북한과의 1차전에 이어 다시 패배해 2패로 승점 0에 그쳤다. 나란히 승점 3을 쌓은 일본(1승), 북한(1승), 중국(1승1패)에 이어 최하위로 처졌다. 한국은 27일 오후 8시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일본과 풀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윤덕여 감독은 차연희(고양대교)를 최전방 공격수, 지소연(아이나 고베)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포진했다. 김수연(스포츠포토), 전가을(현대제철)을 좌우 날개로 펼쳐 2선 공격진을 구성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김나래, 심서연(고양대교)이 배치됐다.

좌우 풀백에는 조소현, 이세진(이상 현대제철), 센터백에는 김도연, 임선주(이상 현대제철)가 버텼다. 골키퍼는 김정미(현대제철)가 맡았다.

한국은 선제골을 너무 일찍 내주 우려를 낳았으나 금세 충격을 털고 경기를 주도했다. 중국은 전반 1분 왕리핑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올린 크로스를 왕리쓰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슈팅해 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한국은 주눅들지 않고 바로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에 나섰다. 한국은 전반 8분 김나래가 중거리슛으로 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나래는 페널티구역 앞에서 대표할 같은 슈팅으로 중국의 왼쪽 골망을 흔들었다. 낮게 깔린 슈팅이 워낙 기습적인 데다가 빨라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으나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슈팅 거리가 어림잡아 25m에 이르는 '장거리포'였다.

한국은 이후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볼을 더 많이 점유했으나 골문앞에서 섬세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아 결정적 득점 기회를 자주 얻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에 잡은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도 아쉬웠다. 김수연은 후반 45분 지소연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차연희가 골 지역으로 쇄도하며 슈팅을 시도했으나 볼이 발을 살짝 빗나갔다.

한국은 후반 초반에도 흐름을 주도했으나 골문을 열지 못해 주도권을 넘겨줬다. 중국은 후반 19분 가오취의 프리킥이 한국의 크로스바를 때린 뒤 기세가 올랐다.

후반 21분 왕리쓰가 페널티지역에서 때린 볼이 골키퍼 김정미를 맞고 나오자 리앙이 제차 슈팅해 골로 연결했다. 한국은 1-2로 끌려가던 후반 26분 수비수 김도연을 빼고 공격수 이민아(현대제철)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은 후반 36분에 한 차례 득점 찬스를 잡았으나 어렵게 놓쳤다. 전가을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지소연이 노마크로 헤딩슛했으나 볼은 골문을 벗어났다.

키 167cm에 몸무게 70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김나래는 중거리포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

김나래는 지난 2010년 독일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30m 중거리 프리킥을 상대 골문에 정확히 꽂아넣었다. 키가 좋은 김나래는 당시 세트 피스 상황에서 전담 키커로 나서 대표팀의 3위 입상에 큰 몫을 담당했다.

같은 해 국내에서 열린 피스퀵컵 결승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김나래는 페널티 지역 왼쪽 외곽에서 얻은 프리킥을 그대로 골로 연결해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실업축구 수원 FMC에서 활약하는 김나래는 올해 여자축구 월드컵에서는 숨겨진 까도 마음껏 발휘했다.

평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활약하는 류현진을 닮았다고 해서 '류현진'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나래는 올해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 선수들로부터 야구 모자와 테니스공을 건네 받고 류현진의 투구 동작을 흉내 내는 '류현진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그는 올해 월드컵에서 혼자 두 골을 넣고 재미있는 세리머니를 선보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24일 경기도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아컵대회 여자 2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 김나래(오른쪽)가 전반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동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